

과도기 역사 속 민초들에 관한 담론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와 최국철의《광복의 후예들》을 중심으로-

2015급 중한비교문학 석사연구생 김미란
(연변대학과학기술학원 동양어학부)

1. 들어가며

한민족의 근대사를 배경으로 창작된 소설들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실제 역사적인 다양한 사건과 에피소드를 모티브로 창작된 작품들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그대로 노출되어 곤경과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민초들의 이야기를 엮은 소설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역사의 흐름에 따른 서사구조를 가진 소설들은 작가의 치열한 역사의식과 작가의식이 없으면 속이 빈 강정처럼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 또한 작품속의 사건과 등장인물들의 적절한 배치와 연결구조가 없다면 역사와 소설의 내용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융합되지 못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실감 있게 잘 조화시킨 황순원의《카인의 후예》¹⁾와 최국철의《광복의 후예들》²⁾이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하려 한다. 두 작품은 비슷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등장인물들을 비롯해 작가의 서술 방식 등 여러 면에서 매우 비슷한 점들이 확연하게 보인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음에도 두 작품은 각기 다른 차이점도 찾아볼 수 있다.

2. 《카인의 후예》와《광복의 후예들》의 비교 연구

2.1. 두 작품의 동질성 고찰

본고에서는 두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동질성을 다음의 세 가지 주제로 분석해 본다. 첫째, 등장인물에 관한 비교이다. 둘째, 서사구조와 방언에 관한 비교 연구한다. 셋째, 두 작가의 역사의식과 그들이 던지는 화두를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두 작가와 작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황순원(1915~2000)은 1915년 3월 26일에 평남 대동군 재경면 빙장리에서 황찬영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일곱 살이 되던 1921년에 황씨 집안은 평양으로 이사했다. 소학교 시절에 당시로서는 드물게 스케이트도 타고 철봉이나 축구도 하고, 바이올린 레슨도 받는 등 부유한 생활을 했다고 전해진다. 정주의 오산중학교와 송실중학을 졸업하고, 일본 동경으로 유학하여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한다.³⁾ 1931년에 시 <나의

1) 황순원, 《카인의 후예》, 문학과 지성, 2006.

2) 최국철, 《광복의 후예들》, 연변인민출판사, 2010.

꿈>을 《동광》에 발표한 후 시 창작을 계속하여 《방가(放歌)》(1934), 《골동품》(1936) 등의 시집을 출간했다. 1937년부터 소설 창작을 시작하여 1940년에 《황순원 단편집》(후에 《늪》으로 개제)을 출간하였다.

《카인의 후예》는 1953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문예》에 연재된 작품이다. 8.15 해방 전후의 토지개혁을 모티브로 북한의 공산 정권 치하에서 정치적 시련을 겪던 끝에 자유를 찾아 남하할 것을 결심하게 되는 한 지식인의 삶을 통해 당시 이념 대립의 격동적 현실을 그린 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당시에 행해졌던 토지개혁⁴⁾을 중요한 모티브로 줄거리를 그려나가고 있다. 고향 회귀와 식민지 시대의 결산과 함께 해방문학의 주요 제재였던 남북 상황의 민족적 비극을 고발하는 문학적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처참한 숙청과 정치적 대 변혁기의 사건들이 등장인물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어떤 이데올로기와 행동양식을 취해갔는지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최국철(1962~)은 1962년 6월 27일, 길림성 훈춘시 량수진에서 5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87년에 량수진정부에서 공청단서기, 사법소 소장을 역임하다가 1995년부터 연변대학 정치학부에서 연수하였고 또 1996년에 연변작가협회 초빙작가로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1999년부터 도문시문학예술연합회 비서장을 역임했다. 《연변 일보사》 문화부 주임으로 근무했고 현재 연변작가협회 주석으로 활동 중이다. 1987년 단편소설 《봄날의 장례》로 데뷔하여 1999년에는 단편소설집 《여름은 추운 계절이 아니다》와 장편소설 《간도전설》, 《광복의 후예들》을 출판했다. 그는 100여 편의 중, 단편소설, 100여 편의 산문, 400여 편의 신문원고들을 발표했다. 1930년대 중반 온성대교의 건설로부터 시작되는 《간도전설》은 실제적 인물유형의 성격을 가진 수십 명의 인물을 통해 중국 조선족 이주사를 문학으로 승화시켰다.

그리고 《간도전설》의 후속편의 성격을 가진 《광복의 후예들》은 이주 1세대와 2세대들이 광복 후 토지개혁이라는 전대미문의 특정시기에 계급분화를 맞이하고 그 소속집단에 속한 특정인들의 인간상을 치열하게 그려내고 있다. 또한 유산자와 무산자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대립구도가 대치되고 혁명의 대상과 혁명의 역량으로 계급분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인간에 대한 폭력과 잔혹사가 펼쳐지고 있다.⁵⁾ 그러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등장으로 특정 이념에 대한 주장보다는 그 속에서 살아갔던 민초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

3) 최은경,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연구－ 인물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p. 8~10.

4) <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 1946년 3월 5일 북한지역에서의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5일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의 발효를 통해 동년 3월 8일~3월 30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특히 5정보이상 소유지를 가지고 있으면 지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소유권을 농민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경작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소작제'로 전환됐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령은 그 후 부분적인 보충과 개정을 통해 1948년 9월 9일 북한헌법으로 그 합법성이 부여되었으며, 1958년 8월 농업 협동화 완성시기 까지 그 효력이 지속되었다.

5) 연변일보 2011년 1월 31일 기사 참조.

2.1.1 등장인물의 동질성

연구 대상인 두 작품 속에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그런데 그들의 유형은 매우 닮아있다. 먼저 시대적인 산물인 유산계급 지주와 소작농들이 줄거리를 끌어간다. 그리고 일본군과 마우재(구 소련의 군인)들을 비롯해 마적들과 공산주의자들까지 다양한 개성의 인물들이 등장하여 역사의 한 부분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두 소설은 등장인물에 대한 공통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 소설의 주인공이 역사의 과도기에 매우 불안한 인물 유형으로 나타난다. 《카인의 후예》의 주인공 ‘박훈’은 지식인이었으나 부모의 뒤를 이어 대지주이며 야학의 선생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광복의 후예들》의 ‘영수’는 일찍 세상을 떠난 부모를 대신하여 대지주로서 넓은 땅과 소작농을 관리하는 인물이다. 두 사람은 매우 젊은 청년들이다. 그리고 시대의 무거운 짐을 지고 새로 다가오는 사회적 변화의 기로에서 불안한 시각으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지주로서 토지와 소작농들을 이끌어 가려는 의지는 매우 강했다. 그래서 비록 나이는 젊고 맞닥뜨리는 세력에 대한 저항 능력은 부족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위치와 붙어 닳치는 상황에 대해 저돌적인 자세로 맞대응하는 모습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이 두 사람 주변에는 마름⁶⁾과 그의 가족이 등장한다. 그리고 각각 마름의 딸, 하인의 딸과 두 주인공은 신분의 차이가 나는 사랑을 하게 된다. 인간적인 본능을 지닌 청년들로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갈등은 또 하나의 무게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토지개혁이 되면서 이 두 주인공은 타도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소작농들에게 땅과 집을 강제로 빼앗기며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악덕 지주로 비판과 타도의 대상이 된다. 더구나 자기 밑에서 땅을 부치면서 살던 많은 소작농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판당하고 핍박을 받는 역사의 피해자로 등장한다.

둘째로는 주인공의 옆에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 인물이 동일하게 ‘마름’이라는 점이다. 《카인의 후예》의 마름인 ‘도섭영감’과 《광복의 후예들》의 ‘룡범’은 마름으로서 대 지주인 주인공들을 보필하며 함께 고난을 이겨나간다. 하지만 끝까지 주인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룡범’과 달리 ‘도섭영감’은 토지개혁으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는 원래 부유한 집 아들이었으나 가산을 탕진하고 떠돌아다니다가 훈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마름이 된다. 해방 후 토지개혁에 앞장서서 지주인 ‘훈’을 배신하고 자신의 이득을 추구해나간 인물로 묘사되었다. 이 두 ‘마름’의 역할은 소설 속에서 소작농들과 지주인 주인공 사이에서 이야기의 전개를 이어주며 전체적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6) 마름은 지주의 대리인으로서, 소작인의 생산 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드물지만, 추수기의 소작료 징수만이 아니라, 소작권의 박탈, 작황, 소작인의 평가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셋째로는 동네 소작인들과 그들의 자식들이 행동양상이 두 소설에서 비슷하게 묘사된다. 그들은 당시 봉건사회의 비천한 신분이었고 대지주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 의존적 존재들이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토지개혁이 되면서 소작농과 빈농들의 신분이 바뀌면서 땅의 분배를 놓고 갖은 수단을 다 하여 좋은 땅을 차지하려 한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주를 향해 공격을 해야 했고 그들과 지주는 다를 것이 없다고 스스로 다그치며 토지를 향한 갈망을 불태운다. 그러면서도 지난날 자신들이 혜택을 받았던 지주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한다. 그들의 행동양식은 자기 생존 본능, 보호 본능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회의 민초들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생존방법중 하나이다. 하지만 두 소설 속에서 보이는 행동양상의 특정부분은 참으로 처참한 인간성의 상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두 여주인공의 인물 비교를 해 볼 수 있다. 《광복의 후예들》의 ‘일숙’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랑하는 ‘영수’를 바라보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는 지주이고 ‘일숙’은 집안의 잡일을 하는 하잘 것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여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키며 그와 함께 한다. 그리고 《카인의 후예》의 여주인공 ‘오작녀’는 이미 결혼을 했던 여인이다. 그러나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 ‘훈’의 주변에서 그를 끊임없이 살피고 사랑한다. ‘오작녀’는 지주를 배신한 마름인 아버지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훈’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함께 출발한다.

이 두 여주인공은 당시의 전형적인 조선의 여성상의 성격을 보여준다. 헌신적이고 순종적이며 자신의 안위보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조선 여성의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인물형이다. 즉, 한 남자를 향한 일편단심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기며 따른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인 ‘훈’과 ‘영수’의 마지막의 옆자리를 그녀들이 차지하게 된다. ‘일숙’과 ‘오작녀’는 두 주인공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어머니와 같은 모성애를 갖게 하고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줄 존재의 인물이다. 그녀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은 보잘 것 없으나 내면에 지닌 자애롭고 헌신적인 모습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 남자가 기댔만한 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 진행되면서 두 여인은 점점 당차고 강한 여성으로 변모해 가는 것을 보게 된다. 상황과 사랑은 여인을 강하게 함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현기증 나는 현실속에서 주인공들을 품어내고 그들에게 정신적인 안식처로서 그녀들이 가지는 동질성을 찾아볼 수 있다.

비슷한 역사적 배경과 사건을 출발점으로 하는 두 소설에서는 이 밖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한다. 특이하게도 이 모든 요소들이 매우 흡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행동양식과 유형은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있을법한 인물들의 군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물 유형이 매우 흡사하게 그려지고 있고 그 줄거리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의 후예’이라는 제목에서 그 ‘후예’는 특정 인물이기도 하겠지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 뿐 아니라 그 소설을 읽고 있는 독자

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두 소설은 이렇듯 역사의 철로를 달리고 있는 모든 독자에게도 그러한 여지를 열어놓았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2.1.2. 서사 구조와 방언에 관하여

두 소설의 서사 구조와 방언에 대해서도 동질적인 부분이 많다. 이 작품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줄거리가 진행된다. 단지 《광복의 후예들》의 마지막 부분에서만 1인칭 작가 시점으로 소설이 마무리 된다. 그리고 소설의 흐름은 역사의 물줄기와 그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과 변화를 연속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 마을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의 파급과 겪어내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행동양식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봉건사회와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배경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두 작품에서의 동질성중의 또 하나는 서술과정에서 많은 방언이 등장한다. 이것은 독자들에게 가독성을 매우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으나 그 방언이 가지고 있는 어원과 현대어의 해설을 통해 보면서 당시의 그 지역 사람들이 삶을 더 사실적으로 느끼게 해 준다. 황순원 작가는 평안남도 사람인데 작가가 살던 주변의 방언이 작품 속에 옮겨와 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현장에 살던 사람들의 그 어투가 그대로 책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방언은 소설 속에서 독자들을 자신의 작품 속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최국철 또한 자신의 고향을 무대로 한 작품 속에 고향의 언어를 그대로 올려놓았다. 그의 작품 속에서의 방언은 생소한 부분이 많지만 그 어휘가 가지는 토속성과 리얼리티는 매우 진하게 독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대화 속에 지나치게 방언이 많이 사용됨으로써 특정 독자들에게는 작품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은 다소 고려한 부분이다.

2.1.3. 두 작가 역사의식의 동질성

역사와 시대를 증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직접적으로 시대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작가의 주관에 배제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냉정한 시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작가의 주관적 평가를 개입시켜 그 시대의 현상을 증언하는 태도이다. 연구 대상이 되는 두 소설은 후자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이 진행되면서 작가의 역사의식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들의 동질적 역사의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과도기적 역사의 흐름은 선과 악에 관한 가치판단이 흐려지게 한다는 점을 부가시켰다. 사회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어제의 권력과 긍정’이 ‘오늘의 몰락과 부정’이 된다. 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지주와 소작농 그리고 일본군인과 마적들 때로는 러시아 병사와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사람들은 선과 악에 대한 가치 판단이 순식간에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다. 두 작가는 이러한 줄

거리를 써내려가면서 ‘절대 선’과 ‘절대 악’이 무엇인지 의문을 던진다.

봉건사회의 잔재로 남아 있는 지주와 소작농들은 토지개혁이라는 긴박한 상황을 통해 신분이 완전히 뒤바뀐다. 악덕 지주로 불리는 지도층과 보호 받아야 할 계급으로서의 극빈의 소작농은 하루아침에 서로 반대의 신분에 놓인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변혁에 의한 결과이다. 결국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다. 사회 구조와 집권자들에 의한 횡포가 이러한 신분의 혼란을 야기하고 서로 원수가 되고 복수의 상황이 설정되게 만들었다. 이것을 작품을 통해 사회의 한 모순으로 들여다보고 역사의 무대에 고발한 작가의 역사의식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둘째, 두 작가는 지난날의 역사적 사건과 민초들의 삶의 모습을 후손들에게 전달 해 주려 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두 작가는 오랫동안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탐방을 통해 목격자들의 증언을 기록했다. 그리고 실존하는 인물들과 가상의 인물을 통해 역사의 과도기를 살아내야만 했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치열하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강한 자들의 손에 의해 서술된 역사의 줄기가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의 민초들의 삶을 그려낸 이 작품들은 역사를 전달해 주는 또 다른 손길이다. 역사를 주도하는 보수적 기득권층과 이에 대립하고 저항하는 개혁자들과 혁명가들만의 역사가 아닌 풀뿌리 같은 민중들의 소리가 크게 담긴 두 작품은 또 다른 역사서이다. 그렇다면 두 작가는 정사와 야사 그리고 또 다른 사관이 담긴 소설로 역사를 풀이한 역사가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문혀버릴 수밖에 없던 역사에 대한 기록이고 독자들과 후손들에게 또 하나의 역사적 내면을 되짚어주는 작업이라 하겠다.

2.2. 두 작품의 이질성

앞에서는 역사적 배경과 사건이 비슷함으로 인해 가지는 여러 가지 동질성을 논했다면 두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질성을 살펴본다.

첫째, 두 소설의 제목이 가지는 직감적인 이질성을 찾아 볼 수 있다.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와 최국철의 《광복의 후예들》은 제목에서부터 강한 인상을 준다. 누군가의 후예⁷⁾라는 것은 그 전통과 유산을 이어가는 존재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카인’과 ‘광복’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다르다.

《카인의 후예》경우 ‘카인’⁸⁾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다.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로부터 악은 유전처럼 흘러내린다. 물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원죄에서 이어진 카인의 범죄는 피를 나눈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처참한 비극을 초래한다. 그렇다면 황순원 작가가 이 엄청난 인물인 카인을 제목에 올리고 더군다나 그의 후예라는 것은 동족을 죽이는 잔혹함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소설의 내용도

7) 사전적 의미로는 ‘핏줄을 이어받은 먼 자손’이라는 뜻.(Daum 어학사전)

8) <구약성서>에서 아담과 이브의 맏아들(창세기 4:1~16)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

제목에서 주는 암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광복의 후예들》에서 언급한 ‘광복’의 의미는 무엇일까?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난 광복은 역사의 한 전환점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 그리고 뭔가 다른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고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개념도 제공한다. 광복의 후예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존재임을 제목을 통해 느끼게 된다. 두 제목에서 주는 뉘앙스는 이미 독자들이 하여금 내용에 대한 암시를 해 주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각각 다른 느낌으로 작품에 다가서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황순원과 최국철의 장편소설에 내포된 주제의식이다. 《카인의 후예》에서는 ‘박훈’의 고향 마을 사람들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인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며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 그것은 형제와 닮은 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이다. 그리고 이 범죄는 그 마을을 넘어서 삼팔선 이북 지역 전체에서 일어난 일이며,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민족 간에 빚어진 참혹한 증오와 살인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카인이 저지른 죄상이 오늘날 또 다른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결국 작가 황순원은 ‘인간성 회복’에 주제로 작품을 끌어가고 있다.

그러나 《광복의 후예들》에서는 이데올로기적인 경향을 최대한 벗어나고 있다. 중국 현지인 지주 장쑤, 마우재(구소련군인), 마적,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조선인 이주민들의 작품의 무대인 남대천을 중심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남대천 사람들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이 조직에 속해 활동한다. 이들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주요 인물들과 얽혀서 줄거리를 이끌어 간다. 그래서 고향이 아닌 중국에 이주해 온 남대천 조선인들의 삶속에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나타난다.

결국 작가 최국철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조가 없다. 즉 그의 소설속의 주제는 《카인의 후예》에서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달리 탈이데올로기적 특성을 드러낸다.

남대천 마을 사람들의 삶이 이어오면서 다양한 역사적 사건이 함께 흘러왔다. 소설의 말미에는 1992년 한국의 ‘남북 이산 가족찾기’로 까지 이어지며 중국 조선족의 선조들과 후예들 그리고 조선족과 한국인과의 ‘뿌리 찾기’에 대한 강한 주제의식을 찾아내게 된다.

3. 나아가며

역사에 관한 기록물은 지배자들의 시각에서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역사는 강한자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를 전하는 방법론적 시각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중의 하나가 문학을 통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연구한 장편소설 《카인의 후예》와 《광복의 후예들》가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역사학자가 아닌 문학가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를 겪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작가의 상상력과 함께 줄거리로 만들어 나가는 창작은 역사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두 작품을 비교해 본 결과 두 소설은 공통점이 과할 정도로 많다. 등장인물이나 서사구조 및 방언 그리고 작가들의 역사의식까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역사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그 때마다 이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인물들의 유형은 늘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도 두 작가는 그러한 소소한 삶의 편린들을 그대로 옮기고자 했던 풀뿌리 역사의식이 이와 같은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반면에 몇 가지 이질성도 언급했다. ‘후예들’을 이끌어가는 ‘카인’과 ‘광복’의 이미지가 주는 암시의 다른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작가가 바라보는 소설의 주 모티브인 토지개혁과 과도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한 주제의 차이점도 찾아보았다.

이 작품 속에서 작가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흐름 속에 함께 휘몰아치던 사람들을 통해 작가는 ‘역사의식’과 ‘뿌리 찾기’ 그리고 ‘인간성 회복’을 부각시켰다. 이것은 역사를 더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대중들에게 제공한다. 이와 같이 소설 속에서 역사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후손들이 단편적으로 알던 역사의 사건을 이러한 주제의 소설을 통해 좀 더 깊게 알 수 있고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애환을 간접적으로나마 깨달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인의 후예》와 《광복의 후예들》은 격동기 한반도와 주변국의 소용돌이 같은 과도기 역사 속에 살아갔던 민초들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후예들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삶의 현장을 바라보게 된다. 역사를 민초의 삶으로 써내려간 이 두 작품은 독자들로 하여금 역사의 현장을 뒤돌아보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용기와 끈기를 갖게 하는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듯하다.

참고자료

- 〔1〕 최국철, 《광복의 후예들》, 연변인민출판사, 2010.
- 〔2〕 최국철, 《간도전설》,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1999.
- 〔3〕 황순원, 《카인의 후예》, 문학과 지성사, 2006.
- 〔4〕 한선화, <탈리념화를 통한 민족적 삶의 원형복원-최국철의 《간도전설》을 중심으로>, 연변대학 2007급 석사연구생 소논문.
- 〔5〕 최은경,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연구- 인물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6〕 류연산, 《인간 최국철과 작가 최국철》, 연변문학, 2004년 12월.
- 〔7〕 2011년 1월 31일자 연변일보 기사 참조.